

MP3 100곡 40초·영화 한편 2분이면 다운 OK

내달 '꿈의 통신' LTE가 온다

'꿈의 이동통신'이라고 불리는 4세대(4G) 이동통신인 LTE(롱텀에볼루션·long term evolution) 서비스 상용화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7월 광주를 비롯한 광역도시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시작돼 내년 전국으로 확대되면 현재 한계에 다다른 3G 데이터 트래픽을 분산해 문제를 해결하고 '모바일 라이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LTE란 3세대 이동통신(3G)을 장기적으로 진화시킨 기술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다운로드 속도가 최대 173Mbps(Mega bit per second, 1초당 100만 비트를 보낼 수 있는 전송속도)나 돼 3G와 비교할 때 5배 이상 빨라진 데이터 전송속도를 자랑한다.

기존 3G가 MP3 100곡(400MB)을 다운로드할 때 3분, 1.4GB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할 때 9분이 걸린다면 LTE는 각각 40초와 2분이 걸리는 셈이다. 또 3G에 비해 영상통화 화질이 8배, 음성은 2배 이상 깨끗하다는 관측이다.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곳은 LGU+다. 3G 시장에서 밀렸던 LGU+는 LTE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교환기, 기지국, 광중계기, 광전송장비 등에 올해만 8500억원을 투자하는 등 내년까지 모두 1조25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창사이래 최대 투자이다.

특히 가장 앞서 오는 7월부터 광주를 비롯한 서울과 수도권, 부산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또 오는 9월말까지 수도권 등 대부분의 광역시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상용서비스 개시 1년 안에 전국망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LGU+의 계획대로라면 전 세계에서 최단 기간

에 전국망 LTE로 뒤덮여 되는 셈이다.

LGU+는 4분기 초에 지금 서비스 중인 CDMA와 LTE를 동시에 지원하는 스마트폰(삼성·LG전자 등)을 출시해 음성 CDMA 중심으로, 데이터는 LTE 중심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또 전국망이 모두 설치되는 내년 중반에는 LTE 전용 스마트폰을 내놓아 음성과 데이터 모두 LTE로 제공할 방침이다.

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존의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이어 전국 82개 시·군·구 지역과 경북 고령군 등에 Wibro 망 구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Wibro 전국망은 전체 인구 대비 85%의 서비스 영역을 구축했다. 현재 별도의 중계기(에그)를 설치해 Wibro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KT는 SK텔레콤이나 LGU+가

LGU+ 광주·서울 등 시작...1년내 전국망 포부 SKT 9월 갤럭시S2 출시·KT 와이브로망 가동 속도 경쟁 '모바일 라이프' 영향...요금 등은 속제

SK텔레콤도 오는 7월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LTE망 상용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네트워킹 경쟁우위 강화를 위해 올해만 3G와 LTE 등 통신망 분야에 3000억원을 추가 투자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수도권과 6대 광역시에 LTE망을 구축하고 2013년까지는 전국망 구축을 완료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전국망 구축을 예정보다 다소 앞당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오는 9월 LTE 기반의 '갤럭시S2'를 내놓을 계획이다. 이 제품은 1.7인치 듀얼코어 칩셋에 4.5인치 대화면을 탑재할 것으로 알려져 현재 출시된 갤럭시S2(1.2인치 듀얼코어·4.3인치 디스플레이)보다 한 단계 발전한 단말기다.

KT는 '4G Wibro' 전국망을 이미 가동

세계 표준인 LTE를 선택한 것과 달리 Wibro를 고집하고 있는데 문제 요소가 있을 수 있다. LTE가 73Mbps의 속도로 3G HSPA(14.4Mbps)보다 5배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면 와이브로는 46Mbps에 그치는 셈이다. 즉 3G HSPA(14.4Mbps)→Wibro(46Mbps)→LTE(73Mbps) 공식이 성립하는 셈이다. 또한 LTE 휴대전화 단말기에 비해서 Wibro 탑재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출시예상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다.

속도가 빨라지면 모바일 라이프도 빠르게 변하고, '모바일 인터넷'에 최적화된 네트워크 관련 산업이 만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은 다양하지 못한 단말기, 네트워크 속도 증가에 따른 요금문제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

KT는 '4G Wibro' 전국망을 이미 가동



SKT 'LTE 시연회'

스마트폰 최고 인기 앱은 '게임'

동영상·생활정보 順...이용자 절반 월 5천원 이상 유료앱 구매

KISDI, 미디어 활용 통계 추적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은 게임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절반에 가까운 스마트기기 이용자들이 월 5000원 이상의 유료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방송·뉴미디어 통계정보시스템인 'KISDI STAT'(http://stat.kisdi.re.kr)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은 게임(18.5%)으로 나타났다.

엔터테인먼트(음악, 방송, 동영상, 사진) 애플리케이션이 14.1%로 2위를 차지했고, 생활정보·날씨 애플리케이션은 13.3%, 내비게이션(지리, 위치,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은 10.2%, 뉴스 애플리케이션으로 9.4%로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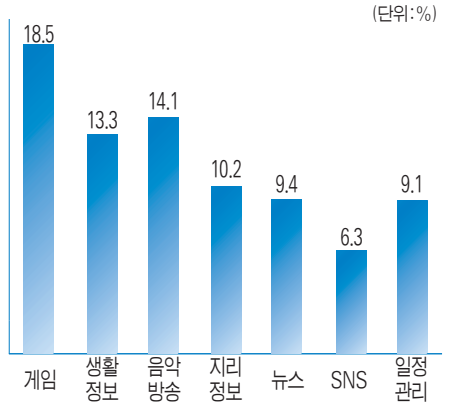
성별로는 남성은 19.3%로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비게이션 및 뉴스(12.9%), 생활정보 및 날씨(12.4%), 유틸리티·일정관리(10.3%)이 뒤를 이었다.

여성은 엔터테인먼트(20.7%)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게임(17.3%), 생활정보(14.7%), 책·만화(8.0%)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9세(100%), 10대(34.8%), 20대(19.9%), 30대(18.1%)에서 게임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꼽혔다. 40대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내비게이션(20%)과 생활정보(16.4%)라고 답했고, 50대에서는 생활정보, 내비게이션, 뉴스, 유틸리티 애플리케이션이 20%씩으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자가 3일간 스마트폰 사용 내용을 기록한 결과를 보면, 통화·문자·이메일·채팅 등 소통(80.28%) 기능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쓰인 기능은 온라인 검색·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온라인상거래(5.9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게임, 방송, 영화·동영상·음악 등 오락적인 기능의

■ 가장 자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종류 (단위:%)



점유율은 각각 1.65%, 3.65%, 5.35%였다.

이 같은 스마트기기 이용자들의 월 평균 유료 애플리케이션 이용료는 월 5000원 미만 사용이 53%로 가장 많았고, 월 5000원~1만원 미만(20.8%), 월 1만원~1만5000원 미만(15.4%), 월 1만5000원~2만원 미만(4.7%), 2만원~2만5000원 미만(3.4%), 3만원 이상(2.7%) 순으로 나타났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체험으로 배우는 '생활속 과학'

조대여고 18일 36개 부스서 '과학체험전'



생활 속에 숨어있는 과학의 원리를 재미있는 체험활동을 통해 깨치는 행사가 광주에서 열린다.

'과학·수학 중점학교'인 조대여고(교장 국석표)는 18일 오전 8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과학실실험과 체육관, 운동장에서 '제1회 과학체험전'을 개최한다.

'소리, 과학에(愛) 물들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과학체험전은 교과서 속에 갇혀 있었던 과학적 원리를 세분화된 체험학습을 통해 생각의 범위를 넓히고 학생들이 과학분야의 다양한 전공과 직업

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과학체험전은 크게 ▲생활속 숨은 과학찾기 ▲어린이들이 들려주는 과학이야기 ▲아름답고 신비한 과학사진 전 등 3개 테마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미니 양부일구만들기(세종대왕의 해시계를 아시나요), 페트병 에어로켓(나니아 로켓 조종사), 태양빛으로 음악하기, 헬륨가스 마시고 저음불가, 잎맥 색깔 만들기, 탕탕불 만들기, 뒤집어 지지 않는 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모두 36개 부스에서 열린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우주쇼' 개기월식 온다

16일 새벽 5시쯤 피크

지구 그림자에 가려져 검붉게 변한 보름달이 남서쪽 지평선 너머로 지는 이색적인 모습을 16일 새벽에 볼 수 있다. 한국천문연구원엔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皆既月蝕) 현상이 16일 새벽에 일어난다고 밝혔다.

이번 개기월식은 새벽 2시 23분에 달이 지구의 반그림자 속에 들어가는 반영 월식을 시작으로 3시 23분에는 본그림자 속에 들어가는 부분 월식이 시작된다. 이후 4시 22분에 개기월식이 시작돼 5시 13분에 달이 최대로 가려진다.

이날 5시 15분에 달이 지평선 너머로 가기 때문에 월식의 전체 과정을 볼 수는 없다.

개기월식은 태양-지구-달이 정확히 일직선으로 들어서서 달이 지구의 본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때 지구의 그림자는 태양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본그림자(본영)와 태양 빛이 일부 보이는 반그림자(반영)로 나뉘기 때문에 개기월식은 반영식→부분식→개기식→부분식→반영식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다음 개기월식은 오는 12월 10일 밤 8시 31분에 볼 수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비수기 고객사은행사 이벤트

제주도 관광열차 여행 파격 특가

₩159,000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가 인증한 우수여행상품

2011 제주도 최대 이슈로 떠오른 한라산 관광열차와 함께하는 유니스코지정 신제주 관광명소 탐방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라산 숲속을 달리는 에코랜드 관광열차와 탐승, 제주의 허파, 원시림을 체험할 수 있는 곳자왓 생태숲길기행 국내 최초의 오토마파크 제주오름공원, 가족과 자연을 테마로 한 휴애리자연생활공원 말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 청기조랑 일대기를 크린 데서사시 더·마파크, 세계 유명 유리공예 전시장 유리의성 돌고래, 물개, 원숭이가 웃음을 선사하는 퍼시픽랜드 동물쇼, 친환경 녹색정원과 건축학의 미학 휘닉스아일랜드해양공원

왕복항공 2명 이상 출발가능!! 다른 일정, 다른 날짜 출발가능

배티고~비행기타고~버스수송 포함 올레길+제주주요 탐방 + 관광열차여행 2박 3일 주중 왕복비행기타고 때는 알뜰 특가 패키지 올레길+제주주요 탐방 + 관광열차여행 3박 4일 주말 가족여행추천상품 알뜰 특가 패키지 올레길+제주주요 탐방 + 관광열차여행 3박 4일

출발일 매주 수요일에 출발 6월 15, 29, 7월 6, 13, ... 출발일 매주 월요일에 출발 6월 14, 20, 27, 7월 4, 11, ... 출발일 매주 목요일에 출발 6월 9, 16, 23, 30, 7월 7, ...

일반호텔(4~6인실) ₩169,000원 관광호텔(2인실) ₩189,000원 일반호텔(4~6인실) ₩159,000원 관광호텔(2인실) ₩189,000원 일반호텔(4~6인실) ₩179,000원 관광호텔(2인실) ₩219,000원

• 공통포함사항 : 여행자보험, 숙박, 식사(관광/특급 호텔은 석식 불포함), 일정에 관광요금, ★ 전상품 유가할증료 포함 • 공통불포함사항 : 기사/가이드 팀(1인 ₩10,000원), 선택관광, 준비물(신분증, 세면도구) * 우도, 마라도 잠수함 사전예약 가능

• 선택 관광 : 더마파크(₩15,000원), 서커스월드(₩12,000원), 제트보트(₩25,000원), 삼국지랜드(₩12,000원), 코끼리쇼(₩12,000원) * 매일 45석 항공확보 - 2명 이상 매일출발가능 * 단속행사시 1인 20,000원 인상됩니다(8명 이상부터) * 성인요금과 아동요금 동일합니다.

(주)부민가자투어 예약센터 광주 Tel.(062)382-8201 제주 (064)748-3131